

일본

1. 생산동향

가. 생산동향 및 생산농가수(절화), 생산액(분화)

○ 양란(절화)의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경향이며, 출하량도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생산농가수도 점점 감소되고 있음. '07년 재배면적은 186ha로 전년산보다 3ha(전년산 대비 2%) 감소를 나타냈으며, 출하량은 전년산과 비슷한 2,270만분을 나타냈음. 또한, 주산지별 출하량의 구성비율을 보면, 도쿠시마현과 후쿠오카현이 각각 1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오키나와현 13% 등을 나타내어 이 3개의 현에서 전국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음.

〈 양란(절화)의 연도별 생산동향 〉

연도별	재배면적 (ha)	출하량 (만분)	생산농가수 (호)	전년산 대비(%)		
				재배면적	출하량	생산농가수
'03	207	2,700	1,310	98	95	98
'04	200	2,560	1,240	97	95	95
'05	195	2,390	1,190	98	93	96
'06	189	2,270	1,130	97	95	95
'07	186	2,270	-	98	100	-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

주 : 생산농가수는 '07년부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양란(분화)의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추세이며, 출하량도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07년 재배면적은 261ha로 아이치현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산에 비해 11ha(전년산 대비 4%) 감소를 나타냈음. 출하량은 1,860분으로 전년산에 비해 60만분(동 3%) 감소했으며, 이는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이 원인임. 또한, 주산지별 출하량의 구성비율을 보면, 아이치현이 2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후쿠오카현 12%, 사이타마현 6% 등을 나타내어 이 3개의 현에서 전국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 양란(분화)의 연도별 생산동향 〉

연도별	재배면적 (ha)	출하량 (만분)	생산액 (억엔)	전년산 대비(%)		
				재배면적	출하량	생산액
'03	292	2,330	344	100	98	-
'04	291	2,180	339	100	94	-
'05	278	2,010	333	96	92	-
'06	272	1,920	-	98	96	-
'07	261	1,860	-	96	97	-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

주 : 생산액은 농림수산성 생산소득통계 / '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나. 생산비용

- 일본의 화훼전체 생산코스트는 고품질, 장경(長莖)생산 등이 요구되어 단위수확량이 낮은 반면, 시설규모의 영채로 설치코스트가 높은 것, 절력화(省力化)의 지연으로 노동시간이 긴 것 등으로 보아 저비용생산 선진국인 화란 등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임(스프레이국화는 약 2배).
- 작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로 인한 절력화, 저코스트 내기후성 시설의 도입 등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절감, 절력 다수확재배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꾀할 필요가 있음.
- 화훼의 유통단계별 경비를 보면, 소매가격에 차지하는 생산자 수취액의 비율은 약 3할, 집출하 및 판매경비가 약 1할, 소매경비 등이 약 6할을 차지하고 있음.
 - 소매경비 등이 높은 것은 꽃다발의 포장,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등의 가공경비, 기술료가 드는 것, 화훼는 신선도가 짧기 때문에 상품로스(재고)가 많은 것 등으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으나 소비자의 요구, 수요동향의 적합성을 반영한 구매관리로 인한 상품회전율의 향상과 유통의 합리화로 인한 코스트 절감 등이 필요하여 유통 경로의 다양화, 양동이 유통 등의 회수 용기의 보급 등의 추진이 필요함.

< 주요 절화(양란)의 생산자 가격 비교 >

(단위 : 엔/100본)

연도/월	양란	국화	카네이션	장미(50본)	백합	터키도라지
'04	20,370	5,858	3,869	3,861	13,130	11,150
'05	22,220	2,700	3,811	3,964	14,440	11,240
'06	23,390	5,622	3,925	4,037	13,150	11,440
'07.3	24,870	2,840	5,312	6,051	24,820	12,700
'07.4	25,330	5,359	3,339	3,556	22,310	12,990
'07.5	22,940	4,799	3,092	3,393	15,200	10,520
'07.6	28,460	4,656	4,517	2,352	10,550	7,129
'07.7	34,100	4,659	3,877	2,921	9,064	9,498
'07.8	33,950	6,107	4,528	2,258	15,270	10,240
'07.9	25,500	6,871	1,860	4,087	19,310	9,814
'07.10	37,880	7,188	5,151	3,952	19,010	10,680
'07.11	38,280	6,025	3,102	4,238	15,820	12,530
'07.12	41,240	6,667	4,158	6,063	17,570	12,120
'08.1	37,000	4,493	3,130	5,914	18,100	13,390
'08.2	27,740	4,810	4,312	7,509	22,240	15,240
'08.3	23,850	7,127	4,579	6,399	21,410	15,730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통계부 『농업물가지수』
 주 : 월별수치(數値)는 개수(概數)의 가격임.

다. 생산단체 현황

단체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사)일본 화훼 생산 협회	도쿄	03-3434-9554	http://www.jfga.or.jp/
일본 양란 농업 협동 조합	도쿄	03-3303-9554	http://www.joga.or.jp/

㉠ 사단법인 일본화훼생산협회

○ 본 협회는 '63년10월에 농림성으로부터 화훼생산자의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단체로서 인정된 공익법인체로 모체는 '52년에 관동 및 동해를 중심으로 한 화훼생산자로 발족한 『일본난지화훼원예협회』로부터 발전된 단체임. 본 협회는 화훼에 관한 생산기술의 향상, 경영 및 유통의 개선으로 인한 화훼산업의 근대적 기업을 늘리고 농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일본의 화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더불어 국민 정조(情操)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I. 배
미국
- II. 포도
싱가포르
- III. 감귤
러시아
- IV. 밤
일본
- V. 양란
일본
중국
-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 추진 사업으로서는 ①화훼의 생산기술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②화훼생산의 경영개선에 관한 사업 ③화훼유통에 관한 사업 ④화훼의 생산 및 경영, 유통의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⑤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임.

㉠ 일본양란농업협동조합(JOGA)

- 일본양란농업협동조합(JOGA)은 1950년에 전신이었던 『대일본란업조합』, 『일본란업조합』의 정신을 계승하고 양란농업생산의 진흥을 꾀함을 커다란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시에는 중요한 고가의 란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보급에 노력함. 설립 후 반세기가 지난 현재 조합 또는 조합원의 활동이 확대되어 란전시회의 개최, 일본과 외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란전을 참가하여 현지를 탐방하는 등 보다 폭 넓은 교류를 행하고 있음.

라. 일본산 생산증감 원인분석

- 일본의 화훼산업은 1945년 이후 순조롭게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1990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국제꽃박람회를 계기로 관심이 한층 높아져 전통적인 꽃꽂이와 일본정원 만들기 등으로 다양한 플러워 디자인과 현대의 거주공간에 적합한 가든, 꽃가꾸기 등으로 국민 전체의 화훼의 즐거움이 다양화됨과 동시에 국내외에서 신품종의 개발과 새로운 식물의 도입 등으로 화훼의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세계 상위권의 화훼생산 및 소비국으로 전환되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업소수요의 감소와 생산 및 판매가격의 저하와 함께 절화를 중심으로 한 수입증가 등 일본의 화훼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어려운 상태에 노여 있음. 여기에 가정용을 중심으로 소분화로 인한 분화수의 증가는 있으나 기업들의 이용이 감소되고 있어 최근 수요는 둔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일본의 양란(절화 및 분화)의 재배는 이러한 배경 하에 매년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양란(분화)에서 가장 재배가 많았던 아이치현에서 '07년에는 전체의 재배 면적 261ha(전년비 4% 감소) 중 63ha(전년비 2% 감소)로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저하여 주요 감소원인으로 볼 수 있음.

마. 주요 대표품종 및 최근 선호되는 품종

- 일본의 양란재배는 메이지(1868년)시대에 도입되어 당시에는 상류층과 황족 간에 확대되었음. 당시에는 묘목을 나누어 심어 증식이 느렸으며, 재배에도 고가의 온실이 필요하여 상류층의 취미나 일부의 전업업자에 의한 고급절화로서 판매에 그쳤음. 그 후 메리크로법 등의 대량증식의 개발, 밀폐성이 좋은 가정내 난방의 시설을 갖춘 주택의 보급, 무종파종법에 의한 교배, 품종개량의 효율화 등에 의해 일반인에게도 확산되고 서민에도 보급되어 하나의 원예의 품목으로 정착되었음.
- 또한, 중국에서는 이미 예부터 토양개발 등 교양인의 고상한 취미로서 온대지상성의 소형 심비디움속의 란과식물을 재배가 이루어져 돌연변이개체의 선발로 인한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었음. 그 후로 일본에도 전해져 중국전래 및 일본에 자생하는 춘란(春蘭)과 한란(寒蘭)처럼 온대성 심비디움속의 란에다 풍란(風蘭)의 변이개체의 품종군인 부귀(富貴)란 및 석곡(石斛)의 변이개체의 품종군인 장생란과 함께 동양란이라는 양란과 다른 품종도 형성되었음.
- 양란은 감상을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주로 열대기원의 란과식물 및 그 교배품종으로 그 취미가 구미를 거쳐 일본으로 도입되는 부분도 있어 양란이라는 이름과 대체로 대륙계의 화려한 양란을 더욱 즐기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양란의 종류에는 대부분이 세계 중에서 열대지방으로부터 도입된 것과 그것을 교배하여 얻은 원예품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심비디움속의 일부와 파피오펜디움속 등을 제외한 그 대부분이 착생(着生)식물이기 때문에 흙에 심으면 적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재배에서 화분의 경우는 물이끼, 나무껍질 등 자생상태와 같은 착생 상태로의 재배에는 헤고판, 코르크의 미가공의 나무껍질 등이 이용됨. 특히, 양란 중 카틀레야, 파피오펜디움, 텐드로븜, 심비디움 등 4개의 품종이 가장 유명하고 이것을 4대 양란이라고 하기도 함. 최근에는 호접란과 반다도 보급이 진행되고 있음.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 카틀레야 〉

구 분	형 상	특 징
카틀레야(Cattleya)		<p>카틀레야(카틀레어라고도 부름, Cattleya)는 중남미 원산의 난과식물의 하나의 속으로 혹은 그 근친속과의 교배품종을 포함한 하나의 식물임. 꽃이 아름답게 피고 재배가 잘되어 가장 유명한 양란임. 양란의 여왕이라고도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화기 : 12~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성 : 3~4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신품종 	<p>Bc. Pastoral 『Innocence』 Blc. Pamela Hetherington 『Coronation』 Lc. Drumbeat 『Triumph』 Lc. Stephen Oliver Fouraker 『Addison』 Blc. Daybreak 『Camera』 Blc. Almakee 『Tip Mariae』 Blc. Green Witch 『Elm Harst』 B. digbyana 『Laura』 B. glauca L. lobata 『Jeny』 L. purpurata 『Carnea』 Slc. Rubescent Atreus 『Pinkie』 L. Canariensis 『Golden Grow』 L. Starry Sky</p>	

< 파피오펜딜룸 >

구 분	형 상	특 징
파 피 오 페 딜 룸 (Paphiopedilum)		파피오펜딜룸(파피오펜딜라이라고도 부름, Paphiopedilum)은 주머니 모양의 진변(唇弁)이 특징적인 난과식물로 양란의 대표적인 품종임. 지상에 뿌리를 내리는 지생란이며, 양란에서는 소수파에 속함.
◎ 개화기 : 12~3월 ◎ 보존성 : 1~3개월 ◎ 최근 신품종		
	Paph. White Knight 『Chigasaki』 Paph. Saint Swithin 『Suzuno』 Paph. Gowerianum 『Gratrixiae』 Paph. sukhakulii Paph. purpuratum Paph. T마매 Shimada 『Tree Village』 paph. Willam Trelease Paph. insigne var. sanderae Paph. Greenville 『The Globe』 Paph. rothschildianum 『Syun』 Paph. Kay Rinaman 『Val』 Paph. concolor Paph. delenatii 『Tsukba Mid Valley』 Phrag. Cardinale 『Wilcox』 Phrag. Eric Young 『Schoch Salmon』 Paph. bellatulum 『Mishima』 Paph. Tree of Amanda 『Rondo』 Paph. Olympic Forest 『Penn Valley』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맞기공품
일본
미국

< 덴드로븀 >

구분	형상	특징
<p>덴드로븀 (Dendrobium)</p> <hr/> <p>● 개화기 : 1~5월</p> <hr/> <p>● 보존성 : 3~4주일</p>	 	<p>덴드로븀(학명: Dendrobium)은 난과 석곡속의 품종으로 일본에서는 석곡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통상은 상기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이 속에 속하는 식물 중에서 양란으로서 재배되고 있는 것을 말함.</p> <p>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다년초, 11~4월 무렵에 개화하며, 원종은 1,000이상 있다고 전해져 그 색이나 형태, 특징도 다양함. 그 때문에 화분으로 기르는 애호가도 많으며, 덴드로븀은 그리스어의 「덴드로(목)」과 「븀(발생한다)」에 유래되었음. 야생에서는 나무에 착생 함.</p> <p>덴드로븀은 그 원종형태의 다양성이 높이나 품종수가 많아 개개의 종류별보다 계통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임.</p>
<p>● 최근 신 품 종</p>	<p>Den. nobile var. virginale Den. Snowflake 『Red Star』 Den. Yukidaruma 『Queen』 Den. Hamana Lake 『Kumi』 Den. aphyllum Den. anodsmum Den. Foridible Den. sulawesiense Den. sanderae Den. Alice Iwanaga 『Happiess』 Den. Hohoemi Den. Berry Den. Specio-kingianum Den. Cherry Song 『Fire Dance Ranmaru』 Den. Gatton Sunray Den. ruppianum Den. thyrsoflorum Den. chrysoglossum Den. cuthbertsonii Den. spectabile Den. chrysopterum Den. secundum, album Den. cariniferum</p>	

〈 심비디움 〉

구 분	형 상	특 징
<p>심 비 디 움 (C y m b i d i u m)</p> <p>● 개화기 : 12~5월</p> <p>● 보존성 : 1~2개월</p>		<p>심비디움(Cymbidium)은 란과의 식물로 일본 등에 자생하고 있는 춘란 등도 포함됨.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단지 「심비디움」이라고 할 때는 동남아시아에 자생하고 있는 것을 품종개량 한 양란으로 한정됨.</p> <p>동남아시아에 자생지는 있지만, 양란의 심비디움으로서 품종개량에 이용된 것은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에 자생하고 있는 것임. 일본에 자생하고 있는 것은 춘란이나 호우사이란, 캔란 등 동양란으로 분류됨.</p>
<p>● 최근 신 품 종</p>	<p>Cym. Lovely Moon 『Crescent』 Cym. Melody Fair 『Marilyn Monroe』 Cym. Lovely Angel 『The Two Virgins』 Cym. Lady Fire 『Red Angelica』 Cym. Showgirl 『Silky』 Cym. Else Sandersen 『Your Call』 Cym. Cassanova 『Devon』 Cym. Splendid Pinkie 『Petit Minerve』 Cym. Khai Sarah' s Star 『Au Revoir』 Cym. Joan Taylor 『Million Kiss』 Cym. Sarah Jean 『Ice Cascade』 Cym. Mary Green 『Spring Wind』 Cym. Pearl Dawson 『Procyon』 Cym. Devon Odyssey Cym. Dorothy Stockstill 『Forgotten Fruits』 Cym. insigne Cym. lowianum Cym. devonianum Cym. tracyanum</p>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 호접란 >

구 분	형 상	특 징
호 접 란 (Phalaenopsis) (胡蝶蘭) ● 개화기 : 11~4월 ● 보존성 : 4~6주일		호접란(학명: Phalaenopsis, 영어: moth orchid)은 난과 호접란속에 속하는 착생란의 일종. 학명으로부터 팔레놉시스라고도 불림. 학명의 어원에 대해서는 꽃이 나비가 춤추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임.
● 최근 신품종	Phal. Mishima Moon 『Yellow Boy』 Dtps. Kinu Spot Sweater 『Saito No. 14』 Dtps. Odoriko 『Nishiizu』 Phal. Taisuco Snow Phal. Grand City 『Saito』 Dtps. Beauty Sheena 『Rin Rin』 Phal. Little Mary 『Aso』 Dtps. Kyoto 『Red Star』 Dtps. Purple Gem Phal. Lemon Pie 『Hanabusa』 Phal. manni, alba 『Irene』 Phal. Hsing Fei 『Taida』 Phal. amboinensis 『Orchideglade』 Phal. equestris 『Pentelina』 Phal. Wedding Promnard 『Spring Romance』 Phal. Oechid World 『Jean McPherson』 Phal. violacea alba	

< 반 다 >

구 분	형 상	특 징
반 다 (Vanda) ● 개화기 : 비정기적 ● 보존성 : 2주일		반다(Vanda)는 단자엽 식물망 난과에 속하며 원종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자생함. 많은 품종은 수목에 착생 하는 착생식물. 동남아시아 원산이기 때문에 양란 중에서도 대체로 그다지 내한성은 강하지 않음.
● 최근 신 품 종	V. coerulea V. Kasem Delighte × Pornpinoal V. Robeat Delight V. Rutsura × Delight V. Thananchai alba × Kultana Gold 『Orchid Village』 Ascfl. Cherry Blossom	

〈 온시디움 〉

구 분	형 상	특 징
<p>온 시 디 움 (O n c i d i u m)</p> <p>◎ 개화기 : 겨울 11~3월 봄 5~6월</p> <p>◎ 보존성 : 겨울 3~4주일 여름 2주일 정도</p>		<p>온시디움은 중남미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약400종을 품종을 가진 란과의 대속. 나무위에서 착생생활을 영위함. 학명은 Oncidium으로 그리스어의 onkos(혹, 움기)와 eidos(모습, 형태)에 연관되어 진번의 기초부에 움기를 말함. 속내의 꽃의 색깔은 황색이 가장 많고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교배종은 Onc. flexuosum나 Onc. varicosum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황색꽃이 다수 붙어 있어 「무리참새」의 이름으로도 불림. 최근 이 속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속에 이동 혹은 새로운 속으로서 분리되는 품종이 많이 있음</p>
<p>◎ 최근 신품종</p>	<p>Onc. ornithorynchum Onc. obryzatum Onc. onustum Onc. cheiophorum Onc. splendidum Onc. papilio Onc. lanceanum Onc. Aloha Iwanaga Onc. Twinkle 『Fragrance Fantasy』 Onc. Popoki 『Mitzi』 Onc. Kukoo Onc. Sweet Sugar 『Emperor』</p>	

- I. 배
미국

- II. 포도
싱가포르

- III. 감귤
러시아

- IV. 밤
일본

- V. 양란
일본
중국

-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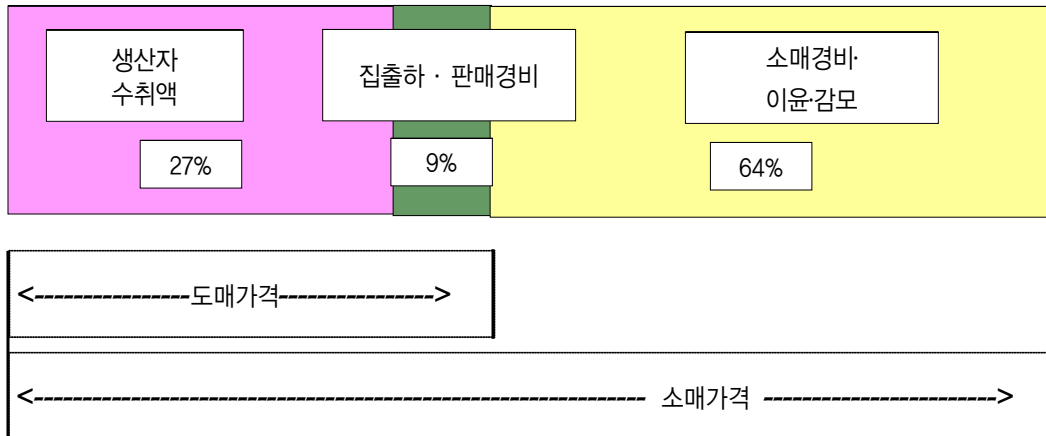
- X. 쌀맞가공품
일본
미국

2. 유통동향

가. 화훼(양란)의 유통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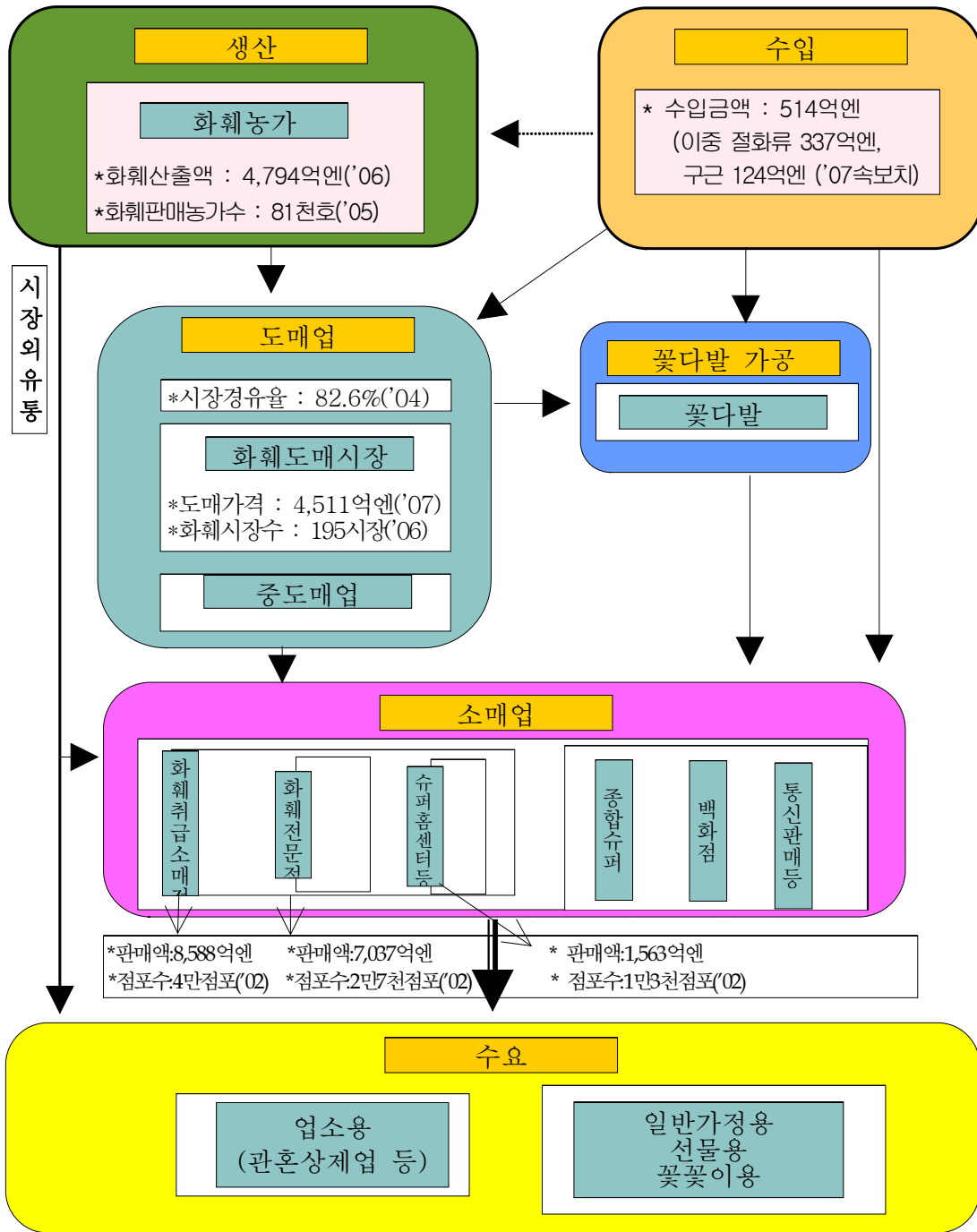
- 일본의 화훼유통은 전국의 산지, 또는 외국으로부터 출하된 화훼가 도매시장에 입하되어 가격형성이 이루어진 후 구매된 화훼를 소매점이 실수요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이 중심이며, 도매시장 경유율은 약 83%임.
-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시장의 유통으로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수요자 및 소비자에게 산지직송판매, 홈센터, 슈퍼, 소매점 등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판매, 직판시설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등이 있음.
- 화훼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을 합쳐 전국에 195개 시장으로 연간 취급물량은 4,500억엔, 도매금액은 절화류는 수평, 분화류는 소분화 경향이 나타나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화훼 등을 취급하는 소매업은 약 4만점포로 연간 약 8,600억엔, 화훼의 소매가격이 차지하는 소매경비 등은 약 60%임.

〈 화훼유통에 있어서의 경비내역 〉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

〈 화훼의 유통경로 〉



- I. 배 미국
- II. 포도 싱가포르
- III. 감귤 러시아
- IV. 밤 일본
- V. 양란 일본 중국
-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자료원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경제산업성 『상업통계』,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화훼생산통계』 『생산소득통계』, 농림수산성 원예과 및 유통과 조사

나. 도매시장의 유통동향

○ 일본의 '07년 절화 전체의 도매수량은 전년대비 95%인 581,441만본으로 감소를 나타냈으나 단가는 전년대비 104% 증가한 58엔/본이었음. 이중 양란류는 전년대비 99%인 16,888만본으로 감소를 나타냈음. 단가는 전년대비 103%인 97엔/본으로 증가를 나타냈음. 양란류의 단가는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를 나타냈음.

〈 '07 양란(절화류)의 도매가격 〉

구 분	수량 (만본)	금액 (억엔)	단가 (엔/본)	전년대비(%)		
				수량	금액	단가
절 화 류 전 체	581,441	3,374	58	95	99	104
양 란 류 전 체	16,888	163	97	99	102	103
심 비 디 움	778	36	460	90	94	104
(수 입 품)	160	12	734	91	96	105
덴 파 레	10,475	49	47	97	102	104
(수 입 품)	7,897	36	46	102	108	107
온 시 디 움	2,741	26	96	99	104	104
(수 입 품)	1,681	14	83	103	109	106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관보통계부

○ 일본의 분화 전체의 도매수량은 전년대비 93%인 291,758천분으로 감소를 나타냈으나 단가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343엔/분이었음. 이중 양란류는 전년대비 93%인 12,188천분으로 감소를 나타냈음. 단가는 전년대비 107%인 2,270엔/분으로 증가를 나타냈음. 양란류의 단가는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를 나타냈음.

〈 '07 양란(분화류)의 도매가격 〉

구 분	수량 (천분)	금액 (백만엔)	단가 (엔/분)	전년대비(%)		
				수량	금액	단가
분 화 류 전 체	291,758	99,945	343	93	98	105
양 란 류 전 체	12,188	27,669	2,270	93	99	107
심 비 디 움	2,247	5,687	2,531	90	90	103
덴 드 로 붐	1,931	1,800	932	89	93	105
덴 파 레	1,081	1,373	1,270	96	99	103
팔 레 높 시 스	4,168	16,109	3,865	99	104	105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관보통계부

3. 소비동향

가. 화훼(양란)의 소비동향

- 일본 화훼의 국내수요는 수평 또는 약간의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업소용의 수요가 저하가 현저하여 이 결과 가정용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보존성 등의 품질이 한층 더 중요시됨과 동시에 적절한 가격대가 요구되는 등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따라서, 가정용 수요에 대응한 생산 및 판매가 요구되고 있음. 또, 다양한 화훼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차 소비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또는 개성적인 화훼의 공급이 기대되고 있음.

〈 절화류의 수요형태의 추정 〉

연도(100%)	'90	'92	'94	'96	'98	'00	'03	'06
업 소 용	37.2	35.9	34.0	33.0	32.7	31.3	31.9	31.6
통 신 판 매 용	13.4	10.5	10.6	11.3	11.6	11.7	11.1	11.3
점 포 판 매 용	49.4	53.6	55.4	55.7	55.7	57.0	57.0	57.0

자료원 : 일본 농림수산성 『화훼수요별소비상황조사』

주 : 점포판매용 - 가정용, 선물용/ 업소용 - 관혼상제용, 꽃꽂이용 등

- 양란의 소비는 현재 도쿄돔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란전』을 정점으로 국제란전이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일본 각지에서 개최되어 란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늘어나고 있음. 양란농원 외에 원예센터와 홈센터 등에서도 다수의 양란이 판매되고 있어 이전에 비해 가격면에서도 적절한 가격대가 요구되고 있음.
- 절화의 소비는 가정용 등의 점포판매가 증가경향이었으나 '00년 전후를 절정으로 수평을 이루고 있음. 절화 및 원예용품의 1세대당 구매금액은 감소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최근에는 수평을 이루고 있음.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 연도별 절화 및 원예품·원예용품의 1세대당 연간구입금액 〉

(단위 : 엔)

연 도	절화	원예품·원예용품
'01	11,536	10,282
'02	11,540	10,470
'03	11,020	9,805
'04	10,697	9,408
'05	10,602	9,094
'06	10,722	9,458
'07	10,828	9,255

자료원 :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주 : 원예품·원예용품은 화분에 심은 식목, 초화(草花)의 종, 비료 등

나. 양란의 수입국가별 선호도

- 일본에서 절화 중 양란은 태국, 대만,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분화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07년 수입물량은 6,362톤(전년비 3.2% 증가) 중 태국이 4,056톤(전년비 1.9% 증가)으로 전체물량의 63.7%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한국산은 3톤 정도로 매우 미미한 물량이 수입되고 있음. 단가면에서 볼 때 전체의 평균단가는 1,077엔/kg으로 다른 절화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중 한국산은 2,370엔/kg, 태국산 973엔/kg으로 한국산이 매우 높은 단가를 나타내고 있음.

태국산 덴파레



4. 수출입동향

가. 수출동향

- 일본의 화훼수출은 분화, 분재, 식목류를 중심으로 최근 대폭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07년에는 5,751백만엔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를 나타냈음. 특히, 중국, 홍콩 등에 분화, 분재, 식목류를 중심으로 급증을 나타내고 있음.
- 양란의 절화수출은 '07년에 독일로 물량 110kg, 금액 79만엔 정도로 매우 미미하게 수출이 이루어졌음.

나. 수입동향

- '07년 양란(절화)수입량은 전년비 3.1% 증가한 6,362톤, 수입금액도 전년비 9.1% 증가한 6,853백만엔, 단가 역시 전년비 5.7% 증가한 1,077엔/kg을 나타냈음.
- '07년 수입량 중 태국이 가장 많으며, 전체물량의 63.8%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대만이 전체물량의 17.8%를 나타내어 이 2개국에서 전체물량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산은 매우 미미한 물량(3톤)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산 수입량은 매년 증감이 반복되면서 '07년에는 전년비 50%로 대폭 증가를 나타냈음. 한편, 단가는 2,370엔/kg로 전년비 2.2% 증가를 나타냈음.
 - 한국산 단가 : ('05) 951엔/kg → ('06) 2,319엔 → ('07) 2,370엔
 - 태국산 단가 : ('05) 767엔/kg → ('06) 854엔 → ('07) 973엔
- 태국은 화훼산업 중에서 란은 가장 중요한 품목이며, 태국국내에서도 많은 소비를 나타내고 있는 한편, 절화를 중심으로 각국에 수출되어 태국 절화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06년 란의 생산통계를 보면, 재배면적 및 물량 모두 '05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06년 첸마이 국제원예박람회가 개최되어 실제로 생산을 증가시킨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음.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 연도별 양란(절화)의 수입동향 〉

(단위 : 톤, 백만엔, 엔/kg, %)

구 분	'05			'06			'07			전년비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한 국	5	5	951	2	4	2,319	3	8	2,370	50.0	100.0	2.2
중 국	2	3	1,159	12	19	1,563	1	2	1,621	-91.7	-89.5	3.7
대 만	841	1,053	1,252	957	1,119	1,169	1,131	1,059	937	18.2	-5.4	-19.8
베 트 남	15	30	2,003	3	13	4,006	17	50	2,941	466.7	284.6	-26.6
태 국	3,883	2,980	767	3,979	3,397	854	4,056	3,947	973	1.9	16.2	13.9
싱 가 폴	500	447	894	187	191	1,021	134	151	1,129	-28.3	-20.9	10.6
말 레 이 시 아	195	222	1,143	472	453	960	511	505	987	8.3	11.5	2.8
화 란	8	23	2,815	6	18	3,093	3	11	3,508	-50.0	-38.9	13.4
뉴 질 란 드	635	1,040	1,637	543	1,054	1,943	499	1,108	2,220	-8.1	5.1	14.3
합 계	6,088	5,811	955	6,168	6,283	1,019	6,362	6,853	1,077	3.1	9.1	5.7

자료원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HS번호 : 0603,10-010 / '07년부터는 0603,13-000

5. 통관제도(절화/양란) 및 관련법규

가. 양란의 상품분류

- HS코드 : 0603.13호(난/신선한 것)
- 관세율 : 양란은 수출입 자유화 품목으로 무세임.

나. 통관절차

- 절화의 수입에 있어서 식물방역법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 워싱턴조약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또, 수입하는 절화가 외래생물법에 해당하는지 등의 주의를 요함.

다. 수입절차

㉠ 외국환율 및 외국무역법 수입무역관리령 관계

- 절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워싱턴조약(절멸의 위험이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조약)의 부속서1, 2 또는 3에 해당하는지의 주의가 필요함.

㉡ 절멸의 위험이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법률(워싱턴조약)관계

- 절멸의 위험이 있는 종의 보존을 피하기 위한 국내법으로서 동법이 있어 워싱턴조약에 의해 지정된 동식물 및 국내에 생식하고 정부령에 의해 지정된 동식물 등의 포획·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단, 등록 대상종에 대해서는 개체등록허가, 사업자 신청서 등 별도의 취급이 있음.

㉢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에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

- 외래생물법관계 : '05년6월부터 특정외래생물에 의해 생태계 등에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외래생물법)이 시행되었음. 이 법률에 의해 특정외래생물의 사양(飼養), 수입 등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음. 또, 미판정외래생물에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수입자에게 신청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가 필요함(문의처 : 환경성).

㉣ 식물방역법 관계

- 절화를 수입할 때에는 식물방역법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됨. 식물방역소에 『식물수입검사신청서』에 수출국의 식물방역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등의 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신청을 행함. 검사의 결과, 병해충 등이 발견되면, 소독, 구제(驅除), 폐기 등의 조치가 명령됨.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식물검사합격증명서』가 교부됨.

㉤ 수입통관

- 輸入(納稅)申告書』에 인보이스(상업송장), B/L, 보험명세서, 식물검사합격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며, 심사·검사 및 납세 후 수입허가서가 교부됨.

라. 관련법규 : 난(蘭)의 워싱턴조약

- 난의 워싱턴조약은 JOGA(일본양란농업협동조합/(<http://www/joga.or.jp>))에서 2006년 10월 17일 게재 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함.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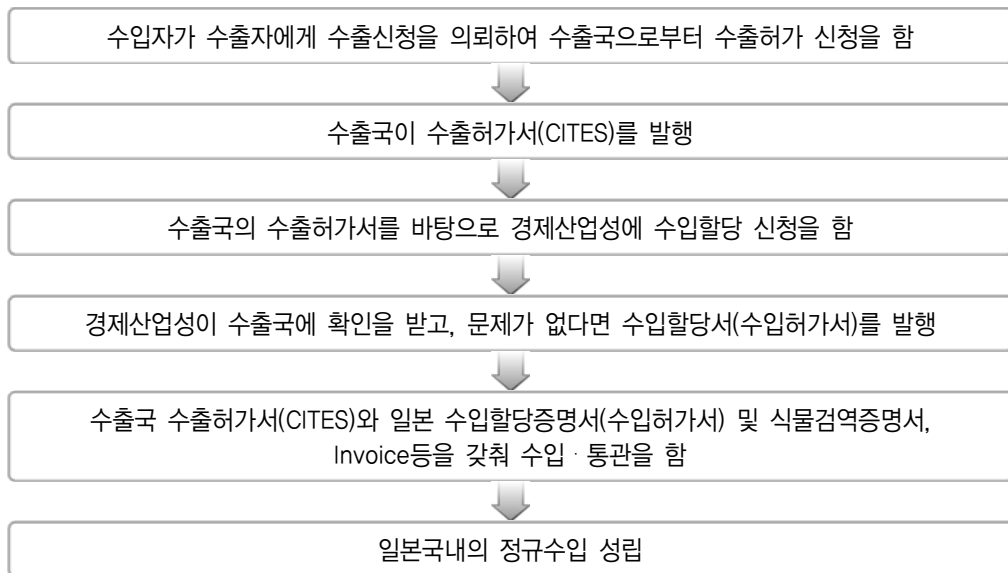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 모든 난(欄)과식물은 워싱턴조약의 대상으로서 국제간 이동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음. 그렇게 때문에 국제 상거래뿐만 아니라 관광여행 등의 선물로서 가져오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출입허가가 필요함.
- 워싱턴조약은 1975년4월2일에 국제조약으로써 발행조건을 만족시키고 1975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음. 일본에서는 1980년4월25일 제91회 통상국회에 의해 본 조약의 체결이 승인을 받아, 1980년11월4일부터 발행하고 있음.
- 모든 난과식물은 규제대상으로 되어있으나 보다 규제가 엄격한 부속서 I 과 기본적인 상거래가 가능한 부속서 II로 나누어져 있음. 대부분의 난과식물은 부속서 II에 분류되어, 발행당초 부속서 I에 포함된 것은 7속 9종만이었음. 부속서는 2년에 한번 개최되는 워싱턴조약 체결국 회의 및 체결국 회의의 중간에 개최되는 식물위원회(plant Committee)에 의해 개정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자생지의 분포나 생식(生息)수의 증가 또는 감소 등이 확인된 경우는 부속서의 변경이 이루어져 부속서 I에서 부속서 II로 변경되거나, 부속서 II에서 부속서 I로 변경되는 것이 있음. 그러므로 부속서의 변경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함.
- 부속서 I의 수입절차 : 부속서 I에 지정된 난과식물은 통상 국제거래에는 엄격한 규제가 따르나,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국내로의 수입이 가능한 것도 있어 상거래가 가능함.(부속서 I의 난과식물 전부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님).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함.(수출국측 허가와 일본측 수입허가가 필요함)



- 부속서Ⅱ의 수입절차 : 부속서Ⅱ는 부속서Ⅰ에 게재된 종(原種)이외의 모두 난과 식물이 대상이 됨. 이것은 원종(原種)뿐만 아니라 교배종(품종)도 포함됨. 부속서Ⅱ의 대상이 되는 것의 식물수입절차는 하기와 같이 시행함(기본적으로 수출국측 허가를 얻으면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함)



특정 조건으로 워싱턴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간거래가 가능한 난과식물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두 수입에는 반드시 CITES의 수출허가서가 필요함.

- 부속서Ⅰ에 게재된 난과식물(2006년10월 현재)

Aerangis sllisii
 Dendorobium cruentum
 Laelia jongheana
 Laelia lobata
 Paphiopedilum spp.
 Peristeria elata
 Phragmipedium spp.
 Renanthera imschootiana

상기의 난과식물이라도 무균배양에 의한 인공번식되어 배양기내에 들어간 상태로 국제 거래되는 것만 워싱턴조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 JOGA(일본양란농업협동조합)의 대응(2006년10월 현재)

모든 수입은 이 워싱턴조약의 규칙에 따라 행하여지면 안 됨. 또한 일본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난과식물은 국제법에 의한 워싱턴조약에 따라 수입된 것 또는 워싱턴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조약이 발효되는 이전부터 일본국내에 존재한 묘를 사용하여 인공번식된 것이 아니면 안 됨.

워싱턴조약 발효 후에 일본이외에서 새롭게 발견된 부속서 I 에 기재된 종(원종)의 수입은 부속서 I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되고 있음. 1990년1월18일에 파피오페딜룸속 전종 및 프라그미페딜룸 전종이 부속서 I 에 기재되어, 그 이후에 많은 파피오페딜룸이나 프라그미페딜룸이 발견되었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원산국으로부터 수출허가서가 나와 있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원칙 수입을 할 수 없음. 향후 원산국에서 인공 번식되어, 그 묘가 세계를 향해 정규 수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일본에서 볼 수 없음.

JOGA에서는 원산국 또는 제3국에 있어, 이러한 새로운 발견 파피오페딜룸이나 프라그미페디움의 인공번식이 확인되어, 정규 CITES의 발급 된 후, 일본에 정규 수입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규수입품인 점을 인정하는 라벨을 발행하게 됨. (라벨 발행은 JOGA 조합원이 수입된 경우만 해당) 그때까지는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부정으로 입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파피오페디움속 및 프라그미페디움속의 교배종은 인공번식품이므로 본래 부속서 II 에 해당하는 식물로 생각되나, 그 원종은 부속서 I 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실로는 CITES상 기재는 교배종이다 하더라도 부속서 I 로 표기하고 있음. 그러나 교배종(hybrid)의 경우는 운용상 부속서 II 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어 있어 일본에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속서 I 로 기재되면서 수입 할당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고, 통관시 확인제(부속서 II 취급)로 되어있음.

6. 한국산 유통동향 및 경쟁국 동향

- 바이어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산은 대부분이 심비디움 품종이 겨울철에 한정되어 수입되고 있으며, 가격대는 150~300대로 일본산과 시기가 같아 물량확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함. 여름에는 뉴질랜드산이 수입되며, 가격대도 본당 700~1,500엔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함. 물량이 가장 많은 태국산은 덴파레와 덴드로븀의 품종으로 연중 수입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산도 같은 품종이 수입되고 있음. 대만산은 온시디움이 주요 수입품종임.



7. 한국산 수출확대방안

- 한국내 양란의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력절감의 다수확재배기술의 도입과 작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로 노동력절감, 저비용 내수성 하우스 도입으로 인한 시설 및 설비비의 절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양란 중 심비디움은 DDA/FTA에 대응한 수출경쟁력이 높은 분야이므로 수출대상국 수요를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여 품종, 작형,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별 시범 사업을 통하여 최적지를 발굴하여 집단화된 수출단지 조성이 시급.
- 양란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고품질재배기술 및 수확 후 관리의 강화와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수출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선별장 등의 운영으로 수출물량의 규모화 및 시설의 자동화, 유통시설 개선 등의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으로 수출경쟁력을 키워 나가야함.
- 양란 고품질 수출품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품종 개발 및 우량종묘의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국 기호에 맞는 화색, 화형, 생육이 왕성한 품종 및 우량계통을 육성하고 수출품종의 국산화 등으로 수출원가를 절감하여야 함.
- 양란의 국제전시회참가 및 판촉전, 플라워쇼, 품평회 등의 개최를 통한 현지시장 홍보 강화로서 한국 화훼의 우수성을 꾸준히 홍보하여야 하며,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신규 수출유망품목의 개발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가 필요함.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1. 중국 심비디움 생산현황

가. 주요 생산지역

① 운남성(곤명) 및 사천성

□ 생산현황(농가수, 면적, 연간 출하량을 중심으로)

한·중 수교이후 한국산 신선농산물중 유일하게 심비디움 만이 중국에서 정말 괜찮은 대접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중국현지 생산업체들의 수와 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수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 중 일부가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나 생산수량을 점차 줄여 가면서 품목을 다변화하거나 다른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3~4년 전부터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농가들은 계속 면적과 수량을 늘려가고 있어서 과잉생산이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는 광저우, 쿤밍지역만 10개 업체에 총 시설면적 약 13만평에 연간 출하량은 약 45만본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반면 규모가 있는 중국업체는 8개 정도에 시설면적은 약 10여만평으로 연간 출하량은 40여만본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소규모의 현지농장이 생산하는 량을 합하면 중국인 현지 업체들의 연간 출하량은 50만본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일본 업체들은 연간 출하량은 그리 많지 않아 해마다 약 2만본 정도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ukoyama가 四川省 西昌지역에서 위탁 생산 하는 수량까지 합하면 약 15만본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의 화훼산업은 운남성과 사천성을 중심으로 발전해오고 있으며 그중에서 심비디움 출하량은 연간 약 110만 본 정도로서 중국전체 생산량의 약 90%이상을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 조기개화의 문제

운남성은 기후문제로 인해 해마다 전체 출하량의 30~40% 정도가 춘절시장 이전에 조기 출하되는데, 금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본다면 춘절 시장에 출하될 수 있는 수량은 약 70만본 전후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수량과 거의 비슷한 수량에 해당된다.

□ 주요 생산품종과 품질 수준

중국 현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품종은 Nobuko를 중심으로 한 적색계열의 수량이 절대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Crescent Lovely Moon’ 을 대표로 하는 황화대륜계 역시 Nobuko 못지않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품종이 전체 수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년 전까지만 해도 Cascade류의 품종이 상당히 인기를 끌어왔지만 일본의 중국 현지 종묘업체로부터 많은 량의 종묘가 공급되면서 이제는 희소성의 가치가 없는 일반 품종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운남성 大漢企業(臺灣업체)과 사천성 西昌 지역에는 일본종묘업체의 특수품종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금년부터 일반 Pink색상 계열들의 생산수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주요 사유로는 중국 소비자들이 Light Pink색상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일찍이 이들 색상의 재배를 기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품질수준을 보면 춘절시기 소비가능량 약 70만본 중 30% 정도인 약 20만본 정도를 A급 수준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중하작이라고 본다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의 사람들은 운남성산 심비디움의 품질을 지나치게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나 춘절시기 전에 대부분 개화될 것이라는 설을 유포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는 한국산의 수출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에 이런 의도로 수출을 진행하다가 큰 손해를 본 농가들이 몇몇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는 하지만 운남성 현지의 품질수준과 품종의 다변화는 한국과 버금가거나 혹은 더 발전된 측면을 볼 수 있다. 이는 재배 규모면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이들은 이미 영세농이 아니며 1만평이상의 규모화된 농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4년 전부터 일본과 호주등지에서 직접 묘를 수입하거나 혹은 품종을 개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제 품종은 論外로 다루어야 할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이 중국 현지의 심비디움 생산 현주소다.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나. 산동성

한국인 생산업체가 5개정도 있으며 아직까지 중국 현지업체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규모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현지 업체들의 재배시설 면적은 2,000평을 전후한 영세 규모로 재배수준 역시 뒤떨어져 있어서 설령 이곳에서 재배를 하더라도 병묘나 육묘부터 시작하지 않고 개화묘를 구입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체 생산 면적은 약 2만평 정도이나 상당정도의 면적이 재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곤명산과 한국산 수입 심비디움을 판매하기 전 늦가을에서 겨울철에만 잠시 보관하는 중간물류 창고 정도로 이용하는 시설로 보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대량의 한국산 심비디움이 조기에 산동성 위해지역의 한 농장에 입고된 후 개화처리 하여 출하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산 심비디움의 품질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런 수출방법으로 출하된 상품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전체 한국산 심비디움의 품질수준을 판단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화처리의 식물은 생산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재배하기가 매우 어렵고 더욱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생산자 측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산동지역은 재배 및 생산기지라기 보다는 점차 중간 유통단계의 시설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다.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 화동지역

광동성과 복건성에서도 일부 업체가 산상지대에서 재배를 하고 있지만 품질은 매우 조악한 수준이며, 판매시기도 빨라 최대 성수기인 춘절시기보다 앞서서 출하되고 있다. 이처럼 광동성 북부지방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은 심비디움 교배종이 많지만 품질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경남 김해의 한 농가가 광동성에 진출하여 산상에서 재배를 하고 있지만 품질 수준이 아주 조악하여 중국전역에서 가장 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광동성의 기후조건이 심비디움 생산에 부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묘 혹은 개화주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어 현지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서류상으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정상적으로 수출한 것이 되어

물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조악한 상품들이 유통됨으로서 심비디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 심비디움의 이미지 손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수출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제도도 심각하게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출농가나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출을 하든지 현행 제도 하에선 수출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 수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나. 품종과 기술력 향상

운남성의 일부 업체들은 금년부터 대량의 호주산 수입묘 신품종과 일본의 신품종들로 재배한 상품을 대량 출하할 예정이다. 품종 경쟁이 격화되면서 새롭게 선보이는 품종들도 많아졌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그만큼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성이 얼마나 있을지?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며 과연 경쟁성이 있는 품종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시장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량이 부족한 품종은 그것이 오래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신품종’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는다. “Kenny wine color”는 아주 오래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이 극히 적은 관계로 오히려 웬만한 신품종보다 좋은 가격에 출하되기가 무섭게 팔리는 게 현실이다. 품종경쟁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중국현지에서 고가에 팔리는 품종만을 선호한 나머지 일부품종에 편중되는 현상이 노골화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재배수량이 적은 한물 지나간 품종이 우대받는 날이 온 것이다. 이처럼 시장이 흡수하기 어려운 품종 편중현상은 이곳 중국 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심화되어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국의 심비디움 재배에 있어서 기술력 문제는 논외로 해도 될 성 싶다. 그만큼 기술력의 진보가 빠르다는 얘기이다. 한국 심비디움 업체들의 중국진출은 모방의 천재들인 중국인들에게 심비디움 재배에 눈을 뜨게 해줬고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길을 알려 준 것이다. 기술을 더 이상 감추고 비밀로 할 것도 없어졌다는 얘기다. 다만 운남성의 재배환경 조건 중에서 수질 문제와 가을철 고온현상 등 외부환경 조건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련자들의 숙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다. 생산 & 유통비용 상승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중국에서의 저비용 생산은 옛날 얘기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생산비용은 약 20~30%이상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 농촌에서는 도시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노동자보다 인건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유가상승 파동과 원재료비 상승 등은 심비디움을 재배하는 중국 농가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겨울철 석탄에 의존하던 난방비가 전년대비 2배 정도 뛰어들라 농가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일반 품목으로 변화

몇 년 전만해도 심비디움은 춘절 화훼류 선물용품 중 비싼 품목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서 다른 품목들과 마찬가지로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일반적인 선물용 품목으로 지위가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수요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임이 분명한데,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일 때는 일반인들이 구매하기 어려웠지만 매년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여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적정가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적정가격을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도매상과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물 종류의 출현을 요구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개발된 많은 선물 상품들로 인해 선물로서의 심비디움 위치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연히 상품이 많아지고 다양해질수록 소비자들의 선택 폭은 그만큼 커지고 가격 또한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2. 심비디움 유통동향과 특징

가. 유통형태와 가격

㉠ 직접 판매

품종과 품질, 수량, 양도시기와 가격을 결정하여 농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형태가 유통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때그때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출하자는 가격과 수량을 조정한다. 중국 현지에서는 아직 경매장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직접판매 즉 유통상인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품종 수량 가격을 협의 결정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대규모 생산면적과 생산지역의 밀집성에 기인한다. 몇몇 대규모 농장은 자체적으로 유통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중간 유통비용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별반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유통상을 통한 위탁판매

어디서나 가장 이상적인 상품 판매는 현금거래일 것이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과잉인 경우 당연히 바이어마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심비디움 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급이 과잉되면서 한국산 심비디움의 위탁판매가 성행하게 되었고, 여기에 중국산 심비디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중국 내 농가에서도 유통상을 통한 대리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농장에서 직접 현금판매가 성사 되는 경우는 몇몇 오래된 유통능력을 갖춘 업체에 불과하며,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50% 이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 가격결정 기능

지극히 이론적인 말일 런지 모르나 가격은 시장을 통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상인의 영향력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점점 커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완전 위탁판매 형식도 생겨나고 있다. 시장상황에 따라 위탁판매는 생산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판매유형임에 분명하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신용과 판매능력이 있는 유통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위탁과 관련한 법률적 장치를 확보하는 일이다. 온전하게 이러한 사전적인 조치와 협의가 있다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유통업체의 신용과 판매능력을 조사하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 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거의 없다. 하지만 중국 현지의 오래된 경험 있는 한국 업체를 통한다면 조사가 가능 할 것으로 본다.

나. 중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비교

최소한 동일품종, 품질에 관한 한 중국 현지산과 수입산과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 중국 현지인이 운영하는 생산업체인 경우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를 서둘러 끝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불투명한 시장 상황에 대처하는 중국인의 전통적인 상습관의 하나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가격을 낮추어 신속하게 판매하고 마는 것이다. 물량이 적으면 ‘놀부심뽀’로 우기지만, 물량이 조금이라도 많을 것 같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다닥 팔아치우고 일찌감치 편히 쉰다. 이것이 중국인의 상습관이다.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3. 소비시장과 구매동향

가. 소비시기의 제한성

심비디움의 최대 소비시기인 춘절시장이 예전에는 1개월여 지속되는 황금기가 있었으나 이제는 보름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수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시간에 기고 넘쳐나는 물량에 밀려 결국 도매상이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춘절시기와 연말연시 시장에다가 국경절전 추석시절에 약간의 소비수량이 있지만 그 수량은 많지 않다. 전체적으로 모든 물량이 춘절용 선물시장에 몰리다 보니 생산능가는 판매량의 한계(작업량의 한계)와 함께 유통상인에 점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나. 구매패턴의 변화

㉠ 고가 상품에 대한 기대감

흔히 ‘현애’ 나 ‘Cascade’ 형태가 그동안 고가상품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중국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희소 가치가 사라졌다. 또한 꽃대를 인위적으로 만든 현애작은 도매상들이 스스로 작업하면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기에 이르렀고, 황색계열을 중심으로 한 중고가 시장도 생산량이 지나치게 폭증하면서 증가시장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제 고가시장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적은 수량을 여러 차례 구매하는 경향

공급량이 많아지고 위탁판매가 성행하면서 도매상은 일시에 많은 양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일시에 대량 구매하는 경우는 지방외지 상인들 밖에 없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한번 움직이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이들이 무턱대고 높은 가격에 구매하거나 결코 헐값에 매입하지는 않는다.

㉢ 다른 蘭類와의 경쟁

춘절시기에는 심비디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꽃들이 선물용으로 소비된다. 특히 동종 난류의 경우엔 호접란(Phalaenopsis)이 심비디움보다 더 큰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데, 추정 규모는 약 1,800만주 정도이다. 4년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호접란 바람이 불면서 중국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재배면적과 수량이 늘어 다가올 춘절시장부터는 과잉생산으

로 인한 가격폭락이 예상된다. 이는 비단 호접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비디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 가격 동반하락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향후 2~3년간 심비디움 생산농가들은 중국 호접란의 과잉생산에 따른 과잉공급 영향권에 들어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난류는 소비시장이 발전하면 할수록 심비디움의 소비보다 호접란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시장 패턴이다. 전세계 시장 어디를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며 중국 역시 추세와 경향은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다.

4. 수출입 동향 및 전망

가. 통계로 본 심비디움 수출동향과 특징

구 분	물 량	비 고 (컨테이너 당 평균수량)
2007.12 ~ 2008.1	616,440본	223 컨테이너(2,764 본)
2006.12 ~ 2007.1	940,950본	312 컨테이너(3,016 본)
2005.12 ~ 2006.1	688,250본	210 컨테이너(3,277 본)
2004.12 ~ 2005.1	739,076본	242 컨테이너(3,054 본)
2003.12 ~ 2004.1	198,120본	83 컨테이너(2,387 본)
2002.12 ~ 2003.1	332,752본	125 컨테이너(2,662 본)
2001.12 ~ 2002.1	332,100본	116 컨테이너(2,863 본)

주 : 본 자료는 교배종을 포함한 것이며 '국립식물검역원' 자료를 기초로 한 통계임

㉠ 2005년 12월 ~ 2006년 1월 특징

- 상당량의 수출물량이 한국에서 현금 구매되어 수출됨
- 위탁대리 판매한 수출물량도 상당량 있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중국업체들과 거래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음

㉡ 2006년12월 ~ 2007년 1월 특징

- 70% 이상이 중국현지의 업체들에게 위탁하여 대리 판매하는 형태로 수출함
- 한국 현지에서 현금 구매 수출한 경우는 전체 물량의 30%를 넘지 못함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2007년 12월 ~ 2008년 1월 특징

- 10%정도만 한국에서 현금 구매하여 수출함
- 90% 이상이 중국 현지 업자들에게 위탁 대리판매

나. 수출입 유통과정상의 문제

○ 실제 전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수입자와 사전 협의한 후 가격과 수량 및 품종을 정하고 수출한 건수는 전체 수량의 10%도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더욱이 사전에 계약금을 수령하거나 L/C를 받은 건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금 지급조건은 판매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미수금(혹은 지급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보장 장치도 없다. 구매의향서나 계약서는 물론이고 판매 후 대금 지급이행 의무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중국 상인에게 넘겨준 꼴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중국 상인이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출상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수출상에게 대금 지급이행 의무를 지우면 되지 않느냐 반문 할 것이다. 문제는 정상적인 수출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있으며, 담보능력과 현금지급능력이 거의 없는데도 이러한 수출상과 어떠한 형식이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현지의 심비디움 시장 현실은 중국 상인과 정상적으로 수출입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의사를 지닌 중국 업체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과의 심비디움 무역관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무역행위를 이행한 업체는 한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법률을 준수할 경우 너무 많은 제약요인이 있는 반면 소득이 없는 심비디움 수출이 되기 때문에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 심비디움 수입에 따른 제반 세금 및 비용(중국)

- 관세 : 10%
- 증치세 : 13%(* 한국의 부가가치세)
- 기업소득세 : 25%
- CITES 발급비용 : USD 285 / 장(장당 3,000株기준)

위의 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계산을 해보면, Container 당 2,300 주를 적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1株당 USD 20으로 가정하면 전체 수입관련 세금및 비용의 합계는 USD

14,322이 된다. 이렇게 정상적인 Commercial INVOICE를 기준할 경우 주당 수입 세금 관련비용이 USD 6을 상회하게 된다.

- 관세 : $2,300 \times \text{USD}20 = 46,000 \times 10\% = \text{USD}4,600$
- 증치세 : $(46,000 + 4,600) \times 13\% = \text{USD}6,578$
- 기업소득세 : 판매이윤율5%로 계산하면 USD2,859
- CITES 비용 : USD 285

라. 금년도 수출 전망

㉠ 대인민폐 한화가치 하락

위엔화 절상과 한화의 가치하락은 심비디움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전년도 대비 25%이상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중국 인민폐는 계속 절상되어 연말연초에 달러당 최소 6.6~6.5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한화는 달러대비 절상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전년대비 적게는 25%에서 많으면 35%까지 수출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시장 경기후퇴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중국경제의 침체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들어 전체시장의 활기가 예년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는 금융권까지 흔들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 특히 이러한 경기침체현상은 북경, 상해, 광둥성 등 경제 중심권 지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기후퇴가 얼마나 춘절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곤란하다. 다만 상당 정도 가격압력과 구매수량의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 사천성 지진사태로 인한 중국 서부시장 침체

아직도 사천성은 지진사태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금년도 사천성을 비롯한 서부지역의 소비경제는 특히 선물용 시장경기는 매우 안 좋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중서부 소비시장의 규모가 매우 위축될 것임은 분명하다.

㉣ 중국정부의 외환관리, 국세관리의 변화

중국은 지금 핫머니와 전쟁 중이다. 이는 외환관련 업무를 매우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I. 배
미국

II. 포도
싱가포르

III. 감귤
러시아

IV. 밤
일본

V. 양란
일본
중국

VI. 새송이버섯
미국
유럽

VII. 유자차
일본
중국
대만

VIII. 돈육
러시아
필리핀

IX. 채소종자
일본
미국

X. 쌀및기공품
일본
미국

의미한다. 한편 금년부터 유달리 國稅관련 조사가 엄격할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수의 업체들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동안 알면서도 묵인하고 넘어갔던 사항들도 다시 들춰내어 징수하고 심지어는 인신구속까지 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경제운영 시스템의 대변화라고 해석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탈법적인 무역거래관행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⑨ 신용있는 업체 물색과 협력

전년도에 수출한 심비디움의 대금결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는 금년도 여름철에 모 중국업체가 한국의 농가에게 ‘계약금’을 주었다는 소문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전년도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소문이 흘러 다니는 걸까? 먼저 전형적인 모 중국업체의 수법과 한국 측 농가의 “체면”과 맞물리면서 외부에 흘러 다니는 낭설일 뿐이다. 대부분 심비디움 수출과 관련된 說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기적인 언동이 대부분이다.